

지도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 - 8

- 느헤미야에 배우는 목회리더십
릭 워렌/ 새들백교회 목사

원리 8 : 반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히 대처하라

19절을 보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도 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 10절에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하기에 앞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 반대가 세 번째 그룹(party, 혹은 우리)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주목하게 된다. 계획이 진행되어 갈수록 반대는 언제나 더욱 커지는 법이다. 처음에는 단지 두 반대 그룹만 있었으나 이제 세 번째의 반대 그룹이 생겼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나가면서 우리는 반대에 대한 6가지의 다른 정보들을 얻게 된다. 그는 사방에서 반대와 부딪힌다. 반대자들의 첫 번째 전략은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이다. 그들은 조롱한다. 저 유대인들은 결코 성을 재건하지 못할 걸. 90년 동안에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니까 지금도 하지 못할 거야. 반대자들이 한두 번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배반코자 한다고 고소한 것이다. 이러한 핑계는 이전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 에스라 4장 13절을 살펴보면 그것은 지난번에도 성벽 공사를 저지시켰던 것이 바로 그 고소였다. 그것은 에스라가 미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반대자들은 왕에게 가서 말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그것을 다시 짓기만 하면, 왕은 이제 그들로부터 더 이상 세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발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다시 시도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음모와 모함이 효과가 없었다. 이제 그런 비방이 효과를 잃은 것은 느헤미야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20절). 느헤미야는 논쟁을 거절했다. 단신이 현명하다면 당신은 반대자들과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생각임을 강조한다. 12절에서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지우셨다. 성벽재건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일의 성공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확신이다. 그는 반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가 한 다른 일은 반대자들이 가진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성의 재건이 그들의 영역권을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반대자의 동기를 밝히 드러낸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말한다. “너희들은 페르시아의 왕을 배반코자 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증서를 꺼낸다. “나는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만왕의 왕에게 순종하려는 것이다. 입을 다물어라” 그는 그들을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

리했다.

이 일이 반대자들을 기를 꺾어 놓았다. 그러나 오직 잠시 동안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느헤미야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 번 더 만날 것이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낙담해 있었지만, 마침내 이 반대자들과 맞서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 성에서 아무런 중요한 권리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1 3:13).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작한다면, 반대를 예상하라.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은 조롱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일하겠다고 간판을 내거는 순간 누군가가 거기다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평생 비난받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결심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라. 그들은 당신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했듯이 사람들은 당신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네가 제국의 건축자라도 되느냐? 너는 90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혼자서 잘났다고 하고 있는냐.” 그것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다.

우리가 땅을 샀을 때, 이곳 새들백 벨리에 약간의 소문들이 나돌았다. “새들백교회가 저기다 교회를 세운대. 113에이커나 되는 땅을 샀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들은 교인 300명 정도 가진 그냥 평범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야. 0.5에이커(약 612평)를 사서 말이야.” 그런 소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새들백 벨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교회에 그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나는 주일에 6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성모독적 행위다. 이단과도 같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을 반대할 것이다. 그 반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히 대처하라. 연은 바람과 함께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다.

만약 당신이 중간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가 최고 책임자의 직책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단계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직책을 맡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 당신이 어떤 회사에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가 보다 지도적인 직책으로 승진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그에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일은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잘못 대처한다면 당신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는 자신이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라고 당신을 반대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

느헤미야는 수사의 중간 책임자 출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였으나, 우연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갑작스럽게 자신이 지도자가 된 곳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그 힘은 그들에게 너무 과한 것이다. 그들은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신이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 당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는 8가지의 원칙을 지침으로써

무관심하며 적대적이었던 공동체가 3일 만에 ‘그 일을 하자’고 말하도록 바꾸어 놓았다.

(끝)

: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184-19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